제21과 성화

[히10:9,10]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성화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문제가 쉽지 않은 것처럼 성화 문제 또한 쉽지 않다. 이런 문제는 이론의 영역으로 넘어서 생활의 경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으로부터 눈을 돌려 자신의 상태와 생활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더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말씀 자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눈을 고정하고 말씀을 확실히 이해한 다음 자기의 상태와 생활을 점검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에 대하여 성경의 설명을 찾아 알아보자.

1. 성화(聖化)라는 말

국어사전에는

1) 성인이나 임금의 덕화.
2) 성스럽게 함.
3) 신의 은총에 의하여 의를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 신성한 인격을 완성함 이라고 정의하였다. 3번이 바로 가톨릭과 개신교가 정의 하는 성화라고 하였다.

이 정의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신학이나 사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화를 공부하려는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성화라는 말이 없다. 거룩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성화(聖化)라고 할 때에 거룩한 성聖자와 될 화化자를 쓰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진행형 단어가 아니고 명사(名辭)로서 성화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그것은 "거룩함"이라는 말을 한자로 적은 것일 뿐이다. 원래는 거룩하다는 형용사이다.

히브리어로는 코데쉬(vd,q,: 명사), 카도쉬(v/dq; 형용사)가 주로 쓰였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a{gio")와 하기아스모스(aJgiasmov")가 쓰였다. 동사는 하기아조(aJgiavzw)이다.

2. 코데쉬나 카도쉬의 용법

구약성경에 코데쉬는 약 470회 쓰였으며, 카도쉬는 약 100번 쓰였다. 카다쉬(vd'q;)도 있는데 동사이다.

이것은 소속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신전에 소속된 남창(男娼)들을 카데쉬(vdeq;)라 하고 창기(娼妓)들을 케데샤(hv;deq])라고 하였다.

[신23:17]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이 말씀 중에 창기는 케데샤이고 미동은 카데쉬이다.

카데쉬가 6회 쓰였고,(신23:17, 왕상14:24, 왕상15:12, 왕상22:46, 왕하23:7, 욥36:14) 케데샤가

5회 쓰였다.(창38:21(두 번),22, 신23:17, 호4:14)

이들은 남창들과 창기들인데 거룩하다는 말에서 나온 단어를 사용하였다. 신전에 속한 자들이 아닌 창기들은 케데샤라고 하지 않고 자나(hn:z:)라고 한다.

이들이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지만 신전에 속하여 신을 위하여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물론 성경 사상은 아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전에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붙인 이름이다. 그들이 신전에 소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들을 말할 때 코데쉬 카도쉬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물건이든지 땅이든지 음식이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것이었다.

일차적으로 성질이나 품성과 관련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성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키 워드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약에서 카다쉬(동사: 거룩하게 하다.)가 약 150번 사용되었는데, 성품에 대하여 사용된 곳이 한 곳도 없다. 이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

3. 하기아조(aJgiavzw)의 용법

신약성경에 하기오스는 약 230번 쓰였고. 하기아스모스는 약 10번 쓰였으며, 하기아조는 28번 쓰였다.

동사 하기아조는 공관복음서에 4회, 요한복음에 4회, 사도행전 2회, 바울 서신에 16회, 베드로전서 1회, 유다서 1회, 요한계시록 1회 쓰였다.

1)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하기아조이다.(마 6:9, 눅 11:2)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고"는 헬라어 "하기아스데토"는 하기아조의 명령 과거 수동태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옵소서.'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태도이다. 이 말은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2) 하기아조는 요한복음에 4회 쓰였는데 그 첫 번째 구절에서 이 동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일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별되었음을 나타낸다. 그것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성별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10: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요6: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성육신 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 탄생하실 때부터 거룩하신 분이시다.

[눅1:35]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분이 다시 이 세상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고 기도하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얻게 하려함이다.

[요17:19]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17:16,17]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17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거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엡 5:26)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해 놓으신 일 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다.

3)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거룩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우 분명히 기술되어 있다.
[히2:11]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근원이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즉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하기오스)이며,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는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단번에 거룩함을 얻게 하셨다.
[히 10:9,10]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 10:14]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에는 속죄와 거룩하게 하는 것의 분명한 관계가 있다. 거룩하게 함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4) 바울은 거룩하여지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들의 뿌리를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고전 1:2,3]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롬15:16]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제물이다. 거룩하게 함은 화해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거룩하게 함은 인간 편에서의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고전6:9-11]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씻음은 침례와 관련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친교하는데(롬 6:4 골 2:12) 거룩하게 함과 의롭게 함의 기초가 있는 것이다.

[고전1:30,31]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31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고전 7:14)

거룩함은 소속의 개념이다.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불신자인 배우자와, 불신자인 자녀들에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과 같은 자리에 이르면 그들도 거룩하여진 것이다.

[엡5:26,27]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딤전4: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딤후2: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들은 거룩함이 깨끗함으로 설명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고 빛이시며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그에게 소속된 사람들이 이런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

[히7:26]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고후7: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거룩하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몸도 역시 깨끗하고 건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소속된 그분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를 우리들은 성화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화는 소속을 나타낸다.

5) 거룩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입는 것이다.

[행20:32]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행26: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헤기아스메노이"인데 26:18의 "거룩케 된"이란 말도 같은 단어이다. 이것은 수동태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입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신33:3을 암시하는 말씀이다.

[신33:3]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성도는 카도쉬이다.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다. 수중이라는 말은 손 안에 있다는 말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발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성도이다. 말씀을 받아 수행하면 그 성품도 고상하여지고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6)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벧전3: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것은 거룩하게 하다. 또는 거룩하게 하다는 동사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곳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사람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여기라는 말씀이다. 새번역은 잘 번역하였다.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은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이다.

[벧전3:15] 다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새번역)

[벧전3: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그의 성전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시며, 어떤 불 순결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욱 더 마음의 순결은 거룩함의 한 조건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함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듯이 그들은 행위에서 거룩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다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이다.

7)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을 거룩하다 함

구약의 코데쉬처럼 역시 소속에 대하여 사용하였다. 하나님께 드린 금은 거룩하고, 예물이 거룩하며 그릇이 거룩하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 거룩한 것이다.

[마23:17,19]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9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딤후2: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상으로 신약성경에 쓰인 하기아조에 대한 말씀들을 다 찾아보고 그 사용된 상태를 살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거룩하게 해 주실 때 거룩하여진다. 그것은 거룩하신 분에게 소속될 때 이루어지는 특성이다. 그리고 그 소속된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한다. 그가 소속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 소속된 사람이 그와 같이 되도록 한다.

하기아조의 가족들 즉 하기오스 하기아스모스 등의 말은 하기아조가 타나내는 의미 이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 단어가 쓰인 내용이 거룩함, 또는 성화를 종합적으로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4. 하기아스모스(aJgiasmov")를 쓴 경우

명사 하기아스모스는 신약성경에서 10회 쓰였고, 일반적으로 "거룩하게 함"을 뜻하는데, 오직 거룩하신 분만이 "거룩하게 함" 곧 거룩하게 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동시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신 분이심을 계시하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 하기아스모스는 정결한 삶을 가리킨다.
[살전4:3-6]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5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6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거룩함은 특히 부부간의 문제를 중심에 두었다. 가정생활에서 순결하라고 가르친다. 가정에서 순결하지 못하면 다른 데서의 순결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정결함과 존경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2) 거룩함은 부정함과 반대의 상태이다.
[살전4:7,8]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8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케 하심"은 "부정케하심(아카달시아 ἀκαθαρσία)"의 반대이며, 또한 아카달시아는 도저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될 수 없는 도덕적 상태이며, 하기아스모스는 부름심이 가져오는 정결한 도덕적 형태이다.

3) 거룩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이다.
[롬6:19-22]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20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21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말은 의에 봉사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의가 역사(役事)하는 대로 살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이다. 의에 대하여 이미 공부했는데, 의가 역사한다는 말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말이다. 이 생명의 열매가 거룩함이라는 뜻이다.

4)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고전1:30]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다. 성도들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거룩하게 하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다.
[살후2:13,14]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14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벧전1: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거룩함을 성령의 역사로 지속하게 된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을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 불가능하다.

5)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히12:14]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좇으라는 말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다. 핍박이라고 번역된 말 디오코(διώκω)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소속된 그리스도를 핍박하듯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거룩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 길에는 핍박이 따른다.
[벧전2:21-25]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궤사도 없으시며 23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거룩함을 얻은 결과이다. 이것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예수를 따라 모방함으로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런 모든 표현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거룩함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기초가 된다. 이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거루하게 함을 얻으며, 성령이 지속시키는 돌보심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묘사하였다.
[빌3:10-16]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미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그들은 산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5. 하기오스(a{gio") 용법

형용사 하기오스는 신약성경에서 약 230회 나오며 여러 경우에 사용되었다.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 다 사용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부분은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거룩함이다.

1) 교회의 거룩함.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고 할 때에 이 말이 사용되었다.

[벧전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교회를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말은 예배당에 대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불러내심을 받은 무리를 뜻하는 말이다. 이들이 성전이 된다.

[엡2:20-22]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전1:2,3]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냥 그분을 모본으로 삼아 그분처럼 되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한 것이다. 성도 개인이나 교회가 동일하다.

2)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롬15:25]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라고 번역된 말이 "하기오스"이다.

[롬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라고 했을 때 "거룩한"이 "하기오스"이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 이것은 영적 예배를 뜻하는 것이다. 영적 예배에 대한 것은 다음 과에서 예배 문제를 공부할 때 연구할 것이다.

[롬15:16]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여기 거룩하게 되어는 "하기아조"이다.

[고전3:16,17]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전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후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은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자들이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거룩하다. 성도가 거룩하니 그들의 모여 이루어진 교회도 거룩하다. 성도 성전과 교회 성전이 다 거룩한 것이다.

[유1:20,21]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도들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극히 거룩하다. 그 믿음은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다. 이 믿음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한다.

6. 하기오테스(aJgiovth")의 용법

[히12:10]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명사 하기오테스는 신약성경에서여기 한번 나온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하는 그분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예수를 믿을 때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이 속성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게 된다.

[벧전1:15,16]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의 거룩하다는 말은 다 하기오스이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거룩함에 참여하라는 것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

7. 하기오쉬네(aJgiwsuvnh)의 용법

명사 하기오쉬네는 신약성경에서 바울 서신에만 3회 나온다.

1) [롬1: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이 하기오쉬네이다. 성결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령께서 부활의 생명 주장하심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시다.(요10:18) 그런데도 부활을 언급할 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서이다.

2) [고후7: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하기오쉬네는 사람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깨끗하게 되는데 기반이 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없다. 예수님의 속죄와 성령의 성결케 하는 일로 하여 깨끗하게 된다.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어야 한다. 그 따로 있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 고후6:16-18과 연결되어 기록된 말씀이다.
[고후6:16-18]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서 따로 있는 것은 중요하다.

3) [살전3:13]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는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11절부터 읽으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와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살전3:11,1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12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상으로 하기오스와 관련된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찾아보았다. 이 말 외에 호시오스와 호시오테스가 있다. 이것은 경건 성결 등으로 하기오스와 같은 어군에 속하는 것 같다. 이 말은 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사용되었고, 2회는 사람에게 사용한 것 같다.
[눅1:75]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엡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두 말씀을 종합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런 사람들은 종신토록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을 나타낸다.

8. 이상에 나타난 것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이렇다.

1) 거룩함은 일차적으로 성질이나 품성과 관련된 말이 아니라 소속에 대한 것이다.
2) 거룩함은 사람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이다.
3)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다.
4)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고전6: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5) 거룩함은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다.
[행20:32]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6) 거룩함은 부정함과 정반대 개념으로 정결한 삶을 뜻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이다.
7) 칭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인데, 성화는 그 생명으로 생활하는 것을 가리킨다. 새로운 생명을 가졌으니 새로운 생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롬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9. 성화가 목표가 되어 성화를 이루려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성화가 자라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는 씨앗과 싹이 이미 포도나무이며, 그것이 성숙한 나무로 자라는 것과 같다.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생명의 역사로 생명이 성숙하게 자라는 것이다.

[마13:37,38]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다. 좋은 씨가 좋은 나무로 자라는 것이다. 이 씨는 의의 씨이기도 하며 거룩한 씨이기도 하다.

[사61: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호10:12]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처음부터 의를 심는다.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다. 같은 이치로 거룩한 씨를 심는다. 그래서 거룩함이 자라는 것이다.

[사6: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는 "제라 코데쉬(vd<qo [r"z<)"인데, 이것은 행악의 종자(제라 메레임(!y[irEm] [r"z<)와 대조된다. 이것은 신약에서 가라지이다. 원수 마귀가 뿌린 씨이다. 이것이 자라면 가라지이고, 엉겅퀴이고 가시이다.

[막4:26-29]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성화를 향하여 자라며 점점 성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엄밀한 의미로 그런 이해는 틀린 것이다. 예수께서 좋은 씨를 심으신 것이다. 즉 거룩한 씨를 심을 것이다. 그래서 거룩함이 자라는 것이지, 행악의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면서 거룩하여져가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에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요10: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된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칭의이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인데 생명은 더 풍성하게 되는 경험으로 자란다. 성경은 이 사실을 여러 면으로 가르쳤다.

[롬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불신에서 시작하여 점점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으로 더욱 큰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고후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스럽지 않은데서 점점 영광스러운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데서 더 영광스러운 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화 진화론을 믿는 것 같다. 성화가 아닌데서 인간의 노력으로 점점 성화되어서 온전한 성화의 경지에 나아간다는 사상이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력은 이미 거룩한 씨가 말라죽지 않도록 잘 지키고 양성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10. 성경에는 적어도 세 가지 사실을 통하여 이런 것을 잘 계시해 주었다. 그것은 광야의 성소와 솔로몬의 성전과 예수님의 삶이다.

[출40:34,35]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은 처음 헌당했을 때 가장 거룩하였다.

[왕상8:10,11]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의 성전도 헌당했을 때 가장 거룩하였다.

성막이나 성전은 이후 날로 더러워져가는 역사를 성경은 분명히 계시하여준다. 그래서 때때로 수리하고 속죄일에 속죄함으로 처음 거룩함은 회복하도록 하였다.

[렘7:12-14]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1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14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곳에 행하겠고.

[수18: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에 성막을 쳤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성막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셨다.

[대하24:5-13]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6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법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7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8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9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10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진지라 11 언제든

지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왕의 유사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 처소에 갖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12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공장과 놋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13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대하34:9,10] 저희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10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아하스 때와 요시야 때에 성전을 수리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성전은 역사가 지나가면서 퇴락하고 헐었다. 그래서 수리하여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였다. 수리하여 회복한 사실을 말한다.

사람도 중생하고 헌신하였을 때 순수하다. 갓 태어난 아기가 깨끗하고 순수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자꾸 더러워진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씻김을 받아서 처음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눅1:35]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는데, 탄생하시면서부터 거룩하였다. 자라나면서 점점 거룩하여진 것이 아니다. 나실 때부터 거룩한 그대로 거룩하게 자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 자란 것이다. 33세가 되었을 때 나실 때보다 33배 거룩하여진 것이 아니다. 언제나 100% 거룩한 상태로 성숙해지신 것이다. 우리의 성화도 이와 같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단번에 주신 거룩함을 더럽힌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하고 예수님의 손길에 항상 씻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평생 이루는 거룩함이다. 거룩함에 대한 오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히10:1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도는 처음부터 거룩하고 그 거룩함이 성숙해간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단번에 그 몸을 드려 거룩하게 된 것을 끝까지 더럽히지 않고 지켜 나아가야 한다. 아멘.